



영락교회 초등/소년부

초등부  
소년부  
약속

1. 예배시간 10분 전에 와요.
2. 예배시간 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해요.
3. 이 책을 소중히 여기며, 이 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요.
4.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요.
5. 예배를 드린 후 주변을 정리해요.

“이렇게 활용하세요.”



위드 - 이 책은 매 월의 주제에 따라 진행되는 초등/소년부 교육내용에 대한 책입니다.



Memory Time  
반 모임 때 선생님과 함께 나눈 내용입니다.



Sweet Time -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식사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 정하여서 주일에 배운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God's Time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QT입니다.



Morning Time  
아침 시간에 자녀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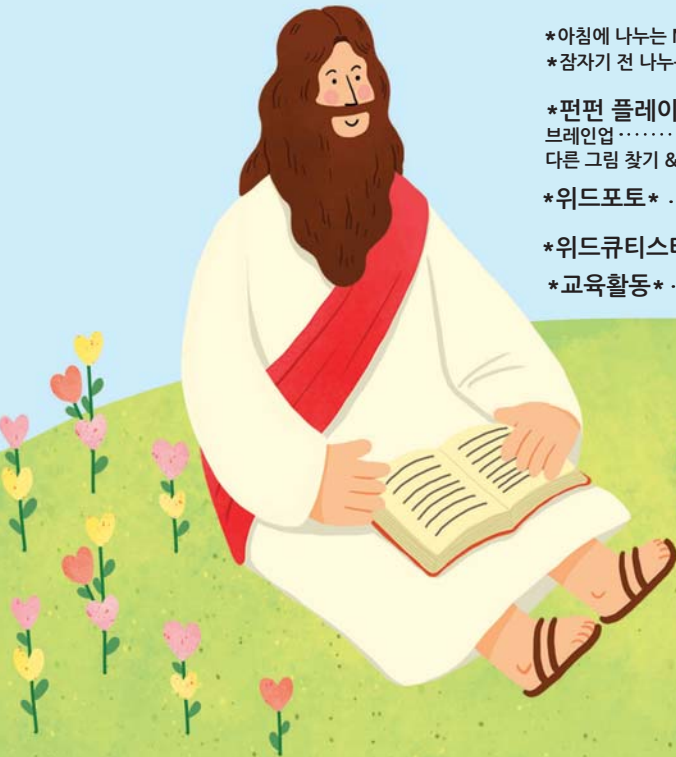
Bed Time - 잠자기 전 자녀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 Morning Time과 Bed Time은 매 월 마지막 주에만 제공됩니다.



FUN FUN PLAY  
친구들이 재미있게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 contents

교육 내용 .....	04
<b>*첫째 주*</b>	
분반 모임 Memory Time .....	06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	07
어린이 QT God's Time .....	08
<b>*둘째 주*</b>	
분반모임 Memory time .....	18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	19
어린이 QT God's Time .....	20
English Bible Study .....	28
<b>*셋째 주*</b>	
분반 모임 Memory Time .....	34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	35
어린이 QT God's Time .....	36
<b>*넷째 주*</b>	
분반 모임 Memory Time .....	46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	47
어린이 QT God's Time .....	48
<b>*다섯째 주*</b>	
분반 모임 Memory Time .....	58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	59
어린이 QT God's Time .....	60
<b>*아침에 나누는 Morning Time .....</b>	<b>68</b>
<b>*잠자기 전 나누는 Bed Time .....</b>	<b>69</b>
<b>*편편 플레이*</b>	
브레인업 .....	70
다른 그림 찾기 & 성경퀴즈 .....	71
<b>*워드포토*</b> .....	<b>72</b>
<b>*워드큐티스티커*</b> .....	<b>75</b>
<b>*교육활동*</b> .....	<b>77</b>





7월 교육내용  
공훈의 삶 & 여름성경학교

# 암송 구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 히브리서 11장 1절 -

## ♥첫째주♥

“섬김의 삶”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기 1장 16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요!**

## ♥둘째주♥

“자비로운 삶”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려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룻기 2장 12절)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요.**

## ♥셋째주♥

“책임지는 삶”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룻기 3장 13절 하반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요!**

## ♥넷째주♥

“믿음으로 사는 삶”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룻기 4장 17절)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을 살아가요!**

## ♥다섯째주♥

“하나님께 순종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의 삶은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 실천 내용

1. 하루에 1가지씩 누군가를 섬기고 섬긴 내용을 기록해요.
2.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공훈의 마음으로 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7월 첫째주  
2023년 7월 2일~8일



# Memory Time



## 섬김의 삶

### 첫째주

♥ 주제 : 긍휼의 삶 & 여름성경학교

♥ 암송구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기 1:16

♥오늘의 주제 : 섬김의 삶 ▷룻기 1:1-16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 1 엘리멜렉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왜 모압 지방으로 갔나요? (1절)
- 2 나오미의 두 며느리 이름은 무엇인가요? (4절)
- 3 남편과 아들을 잃은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어떤 말을 했나요? (8절)
- 4 나오미의 말을 들은 룻은 어떻게 대답했나요? (16절)
- 5 친구들도 룻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주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함께 나눠주세요.

# 가족과 함께하는

# Sweet Time



첫째주

친구들은 새 학기 첫날 교실에서 아는 친구가 없어 당혹스러웠던 경험이 있나요? 그 때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다가와 따뜻하게 말을 걸어주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그때부터 당혹스러움은 사라지고 행복해질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룯의 도움을 받은 나오미도 비슷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룯이 살아가던 시대에 유다 땅에는 극심한 흉년이 들었고, 나오미와 가족들은 흉년을 피해 모압 지방으로 이주했어요. 그런데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은 그 곳에서 죽고 말았지요. 슬픔에 빠진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며느리 중 하나인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나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고, 다른 며느리인 룯은 나오미와 함께하겠다고 말했어요. 오히려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홀로 된 어머니를 보살피겠다고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룯은 자신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나오미를 먼저 생각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섬겼어요. 이러한 룯의 섬김은 나오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기쁘게 해드렸어요. 이처럼 우리도 긍휼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친구들의 섬김을 기뻐하시고 주목하실 거예요. 이와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섬김의 모습을 보이는 친구들이 되길 소망해요.

## 토론하기

**Q1** 지금 우리 가정의 섬김이 가장 필요한 곳은 어디인가요? 함께 나누어 주세요.

**Pray**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 GOD'S TIME 1

## 첫째주

날짜: 2023.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느헤미야 1:1-11 “느헤미야의 간구”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이십년 기슬르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에,
2.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곳에 남아 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 보았다.
3.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4.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5.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 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생략)
7.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8.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 버리겠지만,
9.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 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10. 이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11.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 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 때에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 보고 있었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업신여기다** :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낮추거나  
 하찮게 여김

**간구** : 바라고 구함





with  
관찰

1.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형편을 이야기 해 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2절)

- ① 하가라    ② 하나니    ③ 에스라    ④ 도비아

2. 느헤미야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나요? (11절)

- ① 왕의 술잔을 담당하는 사람    ②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  
③ 왕의 옷을 담당하는 사람    ④ 왕의 친구

with  
생각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었어요. 어느 날 느헤미야는 형제 하나니를 통해 고향 예루살렘이 불에 타 폐허가 되었고, 백성들은 모두 고생이 심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느헤미야는 큰 슬픔에 잠겨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비를 내려 주시기를 간구하였어요.

with  
결심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7절). 그래서 느헤미야는 며칠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지요. 나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가득한 나라가 되기를 기도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해 주세요.

나의 기도 :

---

---

# GOD'S TIME 2 첫째주

날짜 : 2023.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 느헤미야 2:1-10 “임금님께 부탁하는 느헤미야”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아닥사스다 왕 이십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다. 왕에게 술을 따라 드리는 어느 날, 왕께서는 나의 안색이 평소와는 달리 좋지 않은 것을 보시고는
2.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걱정이 있는 일이라도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나는 너무나도 **황공하여**
3. “임금님, 만수무강 하시기를 빕니다.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탓입니다” 하고 아뢰었더니,
4.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야?” 하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5. 왕에게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 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 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략)
7. 나는 왕에게 덧붙여서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소신이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친서**를 몇 통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8. 또 왕실 숲을 맡아 보는 아삽에게도, 나무를 공급하라고 친서를 내리셔서, 제가 그 나무로 성전 옆에 있는 성채 문짝도 짜고, 성벽도 쌓고, 소신이 살 집도 짓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주었다.
9. 왕은 나에게 장교들과 기병대를 달려 보내어, 나와 함께 가게 하였다. 그래서 나는 길을 떠나,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로 가서, 왕의 친서를 전하였다.
10.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노릇을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형편을 좋게 하려고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몹시 근심하였다고 한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안색** : 얼굴빛

**황공하다** : 위엄이나 지위에 눌려 두려움

**소신** : 신하가 임금에 대하여 자신을 낮추어 이르던 말

**울적하다** : 마음이 답답하고 쓸쓸하다

**친서** : 왕이 몸소 쓴 편지

**청** : 부탁

with  
관찰

1. 느헤미야는 어떤 왕의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나요? (1절)  
① 아닥사스다    ② 고레스    ③ 도비야    ④ 산발랏

2. 왕이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친서를 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근심한 두 사람은 누구인가요? (10절)

- ① 아닥사스다, 고레스                      ② 느헤미야, 에스라  
③ 마태, 마가                                  ④ 산발랏, 도비야

with  
생각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하는 관원이었어요. 어느 날 느헤미야의 슬픈 얼굴을 본 아닥사스다 왕은 그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어요. 그러자 느헤미야는 왕에게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것을 이야기하였지요.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였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나서 왕에게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해달라고 하였어요.

with  
결심

술을 맡은 관원은 왕의 옆에서 왕을 보필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술 맡은 관원으로서 누렸던 편안하고 안락함은 포기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방해와 공격을 받고, 생명의 위협까지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였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최고의 가치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인생에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따르며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임을 기억해야 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을 따르며, 말씀을 실천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기도 :

---

---

# GOD'S TIME 3 첫째주

날짜 : 2023.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느헤미야 2:11-20 “느헤미야의 간증”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1. 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서 사흘 동안 쉬고 나서,
  12. 밤에 수행원을 몇 명 데리고 순찰을 나섰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서 일하도록 하신 것을, 나는 그 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나에게 짐승이라고는, 내가 탄 것밖에 없었다.
  13. 밤에 나는 골짜기 문을 나섰다. 용 샘을 지나 거름 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니,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문들도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다.
  14. ‘샘 문’과 ‘왕의 연못’에 이르렀을 때에는, 내가 탄 짐승이 더 나아갈 길이 없었다.
  15. 그래서 그 날 밤에 나는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둘러보고, 다시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왔다.  
(생략)
  17.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 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18.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19. 그러나 이 일이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노릇을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랍 사람 게셈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우리에게로 와서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요?” 하면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20. 내가 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당신들이 차지할 몫이 없소. 주장할 권리도 기억할 만한 전통도 없소.”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수행원** :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따라 다니며 그를 돕거나 신변을 보호하는 사람

**수모** : 모욕을 받음

**반역** : 통치자에게서 권력을 빼앗으려고 함

with  
관찰

1. 말씀을 읽고 빈칸을 채우세요. (17절)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with  
생각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밤에 수행원을 데리고 순찰을 나갔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문들도 다 불에 탄 채 버려져 있는 모습을 본 느헤미야는 관리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아 다시는 이런 수모를 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왕이 느헤미야에게 한 말을 다 전하자 사람들은 힘을 내 공사를 시작하였어요.

with  
결심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기 위해 사람들을 모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통해 큰 힘을 얻었지요. 이것을 ‘간증’이라고 해요. 나에게서 어떠한 간증 이야기가 있나요? 나의 주변의 친구들에게 간증을 통해 하나님을 전하는 내가 되기로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른 친구들에게 전하는 제가 되길 원해요.

나의 기도:

---

---

# GOD'S TIME 4 첫째주

날짜 : 2023.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느헤미야 3:1-32 “예루살렘을 보수하였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나서서, ‘양 문’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고, 문짝을 제자리에 달았으며, ‘함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쌓아서 봉헌하였다.
2.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쌓았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인 삭굴이 쌓았다.
3. ‘물고기 문’은 하스나아의 자손이 세웠다. 문틀을 엮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둔테를 만들어 달았다.
4.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요 우리야의 아들인 므레못이 보수하였고, 그 다음은 므세사벨의 손자요 베레가의 아들인 므술람이 보수하였으며, 그 다음은 바야나의 아들인 사독이 보수하였다.
5.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이 보수하였는데, 그들 집안의 어떤 유력자들은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6.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인 요아다와 브소드야의 아들인 므술람이 보수하였다. 문틀을 엮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둔테를 만들어 달았다.
7.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눓 사람 야돈이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 아래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을 데리고 보수하였다.
8. 그 다음은 세공장이 할해야의 아들 웃시엘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향품 제조업자 하나나가 보수하였다. 그들은 ‘넓은 벽’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을 복구하였다.  
(생략)
31.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 곧 ‘점호 문’ 맞은쪽, 성전 막일꾼들과 상인들의 숙소가 있는 데까지, 그리고 성 모퉁이 누각까지는, 세공장이 말기야가 보수하였다.
32. 성 모퉁이 누각에서 ‘양 문’까지는, 세공장과 상인들이 보수하였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보수하다 : 낡은 것을  
보충해서 수선함

with  
관찰

1. '양 문'은 대제사장 누구와 동료 제사장들이 함께 나서서 하나님께 바치고 제자리에 달았나요? (1절)

- ① 느헤미야    ② 에스라    ③ 엘리아십    ④ 산발랏

with  
생각

느헤미야의 간증에 힘과 용기를 얻은 사람들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양 문'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고 문짝을 제자리에 달았고, 하스나아의 자손, 므레못, 므솔람, 사독 등 많은 사람들이 이곳, 저곳을 보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보수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with  
결심

예루살렘 성곽의 완성은 모든 백성들이 협력에 의해 이루어졌어요. 모두가 하나가 되어 마음과 힘을 합치는 것을 협력이라고 해요. 나 혼자서 하기 어려운 일, 할 수 없는 일도 협력할 때 이루어질 수 있지요. 나와 가족, 친구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 협력할 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나와 가족, 친구가 믿음으로 하나되어 협력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길 원합니다.

나의 기도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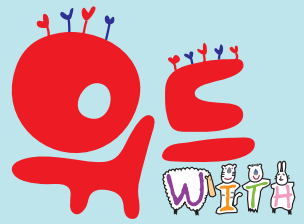
---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 히브리서 11장 1절 -





7월 둘째주  
2023년 7월 9일~15일



# Memory Time



## 자비로운 삶

### 둘째주

♥ 주제 : 룯의 삶

♥ **암송구절**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 룯기 2:12

♥ **오늘의 주제** : 자비로운 삶 ▷ 룯기2:8-13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요.

###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 ① 룯은 무엇을 구하러 밭으로 갔나요? (8절)
- ② 룯은 누구의 밭에서 이삭을 주웠나요? (8절)
- ③ 룯은 보아스에게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나요? (10절)

### ★ 교육활동 - “이삭줍기 저금통 만들기”

- ① 우유팩에 풀을 바른 후 좋아하는 색지를 붙여주세요.  
(한 장만 붙이면 상표가 비춰서 보이니 두 장을 붙여주세요.)
- ② 지붕 모양을 생각하여 잘라서 길이를 맞춰보고 붙여주세요.  
(지붕도 우유팩에 붙인 것처럼 두 장을 붙여주세요.)
- ③ 양쪽 입구를 삼각형 모양으로 잘라서 붙여주세요.
- ④ 한쪽 면에 동전 넣을 공간을 칼로 만들어주세요.
- ⑤ 이제 저금통을 예쁘게 꾸며주세요.
- ⑥ 이삭줍기 저금통 완성!

# 가족과 함께하는

# Sweet Time



둘째주

친구들은 부메랑 놀이를 해본 적이 있나요? 부메랑을 힘껏 던지면 그대로 멀리 날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선행도 이와 마찬가지로요.

룻과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당장 먹을 것도 없었어요. 이 때, 룻이 나오미를 위해서 보아스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갔어요. 보아스는 이런 룻을 보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꼭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목이 마르면 자신의 일꾼이 떠온 물도 마시게 해줬어요. 룻이 어머니를 극진히 섬기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룻을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선행도 기억하고 계셨지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 룻과 보아스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 주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살피고 도와주며 살아야 해요. 우리의 것을 나눌 때 우리의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해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받은 것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 토론하기

**Q1.** 우리 가정이 이웃과 친구를 위해 무엇을 나누어 줄 수 있을까요?  
함께 나누어 보세요.

**Pray**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 GOD'S TIME 1 둘째주

날짜 : 2023.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느헤미야4:1-12 “방해하는 산발랏과 도비야”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몹시 분개하며 화를 내었다. 그는 유다 사람을 비롯하여,
2.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에서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불타 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하고 빈정거렸다.
3. 그의 곁에서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야도 한 마디 거들었다. “다시 쌓으면 뭘 합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 않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겁니다.” (생략)
6.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였다.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였으므로, 성벽 두르기는 마칠 수 있었으나, 높이는 반밖에 쌓지 못하였다.
7. 그 때에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랍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잘 되어가고 있으며, 군데군데 무너진 벽을 다시 잇기 시작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몹시 화를 내면서,
8.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을 치기로 함께 모의하였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이었다.
9.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10. 그런데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
11. 한편 우리의 원수들은, 취도 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여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12. 그들 가까이에서 사는 유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라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고 한다고, 열 번이나 일러주었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분개 : 몹시 분하게 여김

빈정거리다 : 비웃는 태도로 자꾸 남을 놀림

모의 : 어떤 일을 피하고 의논함

with  
관찰

1. “다시 쌓으면 될 합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 않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겁니다.”라는 말을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3절)

암몬 사람

with  
생각

백성들이 힘을 모아 성벽을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과 도비야는 몹시 화를 내고, 그들을 조롱하였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마음을 모아서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였지요. 그러자 산발랏, 도비야, 아랍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들은 모여 나쁜 계획을 세웠어요. 그것은 바로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성을 치자는 것이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했어요.

with  
결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바로 마귀이지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마치 산발랏과 도비야가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 것을 싫어했던 것처럼 말이예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드리고, 또 한편으로 더 열심히 말씀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 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의 도우심과 말씀을 지키는 노력을 통해 믿음으로 더 성장  
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

---

---

---

# GOD'S TIME 2 둘째주

날짜 : 2023.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느헤미야 4:13-23 “무장하고 일하는 백성들”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3. 그래서 나는 백성 가운데서 얼마를 가운뎃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 낮은 빈터에 배치하였다.
14.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을 격려하였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15. 드디어 우리의 원수들은 자기들의 음모가 우리에게 새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모두 성벽으로 돌아와서, 저마다 하던 일을 계속하였다.
16. 그 날부터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 가운데서 반은 일을 하고, 나머지 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을 하였다. 관리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유다백성 뒤에 진을 쳤다.
17. 짐을 나르는 이들은,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
18. 성벽을 쌓는 이들은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하였다. 니팔수는 나의 곁에 있게 하였다.
19.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에게 지시하였다. “하야 할 일이 많은데다, 일하는 지역이 넓으므로, 우리는 성벽을 따라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20.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여 와서, 우리와 합세하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 주신다.”
21. 우리는 이른 새벽부터 밤에 별이 보일 때까지 일을 하였다. 우리 가운데 반수는 창을 들고 일을 하였다.
22. 이 기간에 나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밤에는 저마다 자기 가 데리고 있는 부하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 묵으면서 경계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하여라.”
23. 나도, 나의 형제들도,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들도, 나를 따르는 경비병들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옷을 벗지 않았으며, 물을 길러 갈 때에도 무기를 들고 다녔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배치 : 사람이나 물건을 일정한 자리에 나누어 둠

음모 : 좋지 못한 일을 몰래 꾸미

with  
관찰

1. 말씀을 읽고 빈칸을 채우세요. (17-18절)

짐을 나르는 이들은, 한 손으로는  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를 잡았다.

성벽을 쌓는 이들은 저마다 허리에  을 차고 일을 하였다.

with  
생각

방해하는 세력이 거세지자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칼, 창, 활로 무장시켜 배치하였어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백성에게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싸우라'고 격려하였어요. 백성들은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고 열심히 일을 하였어요.

with  
결심

백성들은 자신들을 방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아지자 창, 방패, 활, 갑옷 등 무기로 무장하고 일을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성을,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을 때 내가 가져야 할 무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창, 방패, 활, 갑옷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무장하는 내가 되기로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기도:

---

---

---

# GOD'S TIME 3 둘째주

날짜 : 2023.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느헤미야 5:1-13 “민족들에게 교훈하는 느헤미야”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백성 사이에서 유대인 동포를 원망하는 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 부인들이 더 아우성이다. (생략)
3.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울부짖는다. “배가 고파서 곡식을 얻느라고, 우리는 밭도 포도원도 집도 다 잡혔다!”
4.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외친다. “우리는 왕에게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밭과 포도원을 잡히고 돈을 꾸어야만 했다!”
5. 또 더러는 이렇게 **탄식**한다. “우리의 몸이라고 해서, 유대인 동포들의 몸과 무엇이 다르냐? 우리의 자식이라고 해서 그들의 자식과 무엇이 다르단 말이나? 그런데도 우리가 아들딸을 종으로 팔아야 하다니! 우리의 딸 가운데는 벌써 노예가 된 아이들도 있는데, 밭과 포도원이 다 남의 것이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다.” (생략)
7.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어찌하여 같은 **겨레**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나무랐다.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겠기에, 나는 대회를 열고서,
8.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서 종이 된 유대인 동포를, 애써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동포를 또 팔고 있소. 이제 우리더러 그들을 다시 사오라는 말이요?” 이렇게 말하였으나, 그들 가운데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들에게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9. 내가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10. 나도, 나의 친족도, 그리고 내 아랫사람들도, 백성에게 돈과 곡식을 꾸어 주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부터는 백성에게서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둬시다.
11. 그러니 당신들도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과 집을 오늘 당장 다 돌려 주십시오.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꾸어 주고서 받는 비싼 이자도, 당장 돌려주십시오.” (생략)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일다 : 어떤 현상이 생겨남

탄식 : 한숨을 쉬며 한탄함

겨레 : 한 조상의 핏줄을

이어받은 자손들, 민족

처사 : 일을 처리함



with  
관찰

1. 말씀을 읽고 빈칸을 채우세요. (9-10절)

내가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도, 나의 친족도, 그리고 내 아랫사람들도,  
백성에게 돈과 곡식을 꾸어 주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부터는 백성에게서

받는 것을 그만두시다.”

with  
생각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정착하는데 그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먼저 정착해 있던 같은 민족과 고관들이었어요. 함께 힘을 합쳐 도와야 할 그들이 자신들의 부와 권력으로 다른 백성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였던 것이에요. 백성들의 원망이 느헤미야는 귀족과 관리들을 불러 같은 민족끼리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등 돈놀이를 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였어요. 그리고 이제 같은 민족에게서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두고, 이미 받은 이자도 당장 돌려주라고 하였어요.

with  
결심

내가 가지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이지요. 그런데 먼저 정착해 있던 귀족과 관리들은 그 사실을 잊고, 자신의 능력으로부터 온 것처럼 행동했던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한다고 경고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아낌없이 나누는 내가 되기로 결단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아낌없이 나누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기도 :

---

---

# GOD'S TIME 4

## 둘째주

날짜 : 2023.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느헤미야 5:14-19 “청렴한 느헤미야”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 나는 아닥사스다 왕 이십년에 유다 땅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아닥사스다 왕 삼십이년까지 십이 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지만, 나와 나의 친척들은 내가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녹**의 혜택을 받지 않았다.
- 그런데 나보다 먼저 총독을 지낸 이들은 백성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리고, 양식과 포도주와 그 밖에 하루에 은 사십 세겔씩을 백성에게서 거두어들였다. 총독들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을 착취하였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 나는 성벽 쌓는 일에만 힘을 기울였다. 내 아랫사람들도 뜻을 모아서, 성벽 쌓는 일에만 마음을 썼다. 그렇다고 우리가 **밭때기**를 모은 것도 아니다.
- 나의 식탁에서는, 주변 여러 나라에서 우리에게로 온 이들 밖에도, 유다 사람들과 관리들 백오십 명이 나와 함께 먹어야 했으므로,
- 하루에 황소 한 마리와 기름진 양 여섯 마리, 날짐승도 여러 마리를 잡아야 하였다. 또 열흘에 한 차례씩은, 여러 가지 포도주도 모자라지 않게 마련해야만 하였다. 그런데 내가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녹**까지 요구하였다면, 백성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었겠는가!
-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청렴 : 성품과 행실이 고결하고 탐욕이 없음

녹 : 관원에게 일년 또는 계절 단위로 나누어 주던 금품

밭때기 : 얼마되지 않는 조그마한 밭을 앞잡아 일컫는 말

with  
관찰

1.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몇 년간 있었나요? (14절)

- ① 10년      ② 11년      ③ 12년      ④ 13년

2. 말씀을 읽고 빈칸을 채우세요. (19절)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를 베풀어 주십시오.”

with  
생각

과거 총독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스리는 지방의 백성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거두어들였어요. 백성들이 힘든 것은 전혀 개의치 않았지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달랐어요. 유다 땅의 총독으로 임명받아 12년 동안 일하였지만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돈이나 혜택조차 받지 않았어요.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새긴 하는 일에 열중하였어요.

with  
결심

하나님의 사람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나의 힘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않아요.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을 묵묵히, 그리고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이지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묵묵히, 성실하게 수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

---



## 히브리서 10장 19-25절 (새번역성경) / Hebrews 10:19-25 (NIRV)

Faith - Trusting in what you can't see because of what you can see.

믿음 - 볼 수 있는 것을 통해 볼 수 없는 것을 신뢰하는 것.

19.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0.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21.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22.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서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23.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24.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25.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니다.

Hebrews 10:19-25 (NIRV)

19. Brothers and sisters, we are not afraid to enter the Most Holy Room. We enter boldly because of the blood of Jesus.
20. His way is new because he lives. It has been opened for us through the curtain. I'm talking about his body.
21. We also have a great priest over the house of God.
22. So let us come near to God with a sincere heart. Let us come near boldly because of our faith. Our hearts have been sprinkled. Our minds have been cleansed from a sense of guilt. Our bodies have been washed with pure water.
23. Let us hold firmly to the hope we claim to have. The God who promised is faithful.
24. Let us consider how we can stir up one another to love. Let us help one another to do good works.
25. And let us not give up meeting together. Some are in the habit of doing this. Instead, let us encourage one another with words of hope. Let us do this even more as you see Christ's return approaching.

### Vocabulary

(not) give up - 포기하다 (포기하지 않다)    habit - 습관  
encourage - 격려하다    return - 돌아오다 (예수님의 재림)

### Observation

Write the missing letters.

25. And let us not g\_\_\_\_\_ u\_\_\_\_\_ meeting together. Some are in the h\_\_\_\_\_ of doing this. Instead, let us e\_\_\_\_\_ one another with words of hope. Let us do this even more as you see Christ's r\_\_\_\_\_ approaching.



## Interpretation

히브리서의 저자(책을 쓴 사람)는 예수님을 '위대한 제사장'이라고 말해요. 죄로 인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흘려야 하는 피를 대신해서 흘려주셨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하며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공동체, 즉 교회가 될 수 있었어요.

## Application

Do you know the proverb: "Too many cooks spoil the broth?" It means if there are too many people and do not work together, things may go wrong. However, what if the cooks work together in harmony? They would come up with a great outcome. The author of Hebrews encourages us to live together in faith just like the cooks working together.

We have a 'great priest.' That's Jesus. Thanks to Jesus who paid the price for our sins and died on the cross, we can come to God. The author of Hebrews tells us to keep our hope firm in our faith in Jesus, the great priest; and also encourages us to love each other, practice good works, and worship together by waiting the day when Jesus returns.

Dear friends, God has given us a community to live in faith together. Even though it is sometimes difficult to keep faith in Jesus, God has given us family, friends, and the church that encourage each other. I hope you love and encourage each other and keep faith in any situation! Bless and love you!

친구들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속담을 알고 있나요? 여러 사람이 각자 자기주장만 내세우면 결국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의 속담 이에요. 하지만 만약 사공들이 힘을 합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어떤 배보다도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이처럼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힘을 합쳐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해요.

우리에게는 '위대한 제사장'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지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위대한 제사장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소망을 굳게 지키라고 말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선한 일을 실천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함께 힘써 예배하자고 해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공동체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기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그럴 때마다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가족, 친구들, 그리고 교회를 우리 곁에 보내 주셨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믿음을 지키는 친구들이 되길 소망해요!

### Let's memorize

Let's memorize Hebrews 10:25, NIRV

히브리서 10장 25절을 외워보도록 해요!

25. And let us not give up meeting together. Some are in the habit of doing this. Instead, let us encourage one another with words of hope. Let us do this even more as you see Christ's return approaching.

- Hebrews 10:25. NIRV -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 히브리서 11장 1절 -





7월 셋째주  
2023년 7월 16일~22일



# Memory Time



## 책임지는 삶

### 셋째주

♥ 주제 : 긍휼의 삶 & 여름성경학교

♥ 암송구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 룻기 3:13 하반절

♥ 오늘의 주제 책임지는 삶 ▷ 룻기 3:1-18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요!

### ★ 말씀나눔

- 1 사람들이 룻을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나요? (11절)
- 2 보아스는 룻에게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하나요? (13절)
- 3 룻은 겔옷에 무엇을 받아갔나요? (15절)
- 4 나오미는 보아스가 약속한 것을 이룰 때까지 어떻게 할 것이라고 했나요? (18절)
- 5 책임을 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함께 나누어 보세요.

# 가족과 함께하는

# Sweet Time



옛날 이스라엘에는 ‘고엘’이라는 법이 있었어요. 가까운 가족이든, 먼 친척이든 어려움에 처한 가족이 있으면 반드시 책임지고 도와주어야 하는 법이었지요. 이때 도움을 주는 사람을 ‘기업을 무를 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도우며 살도록 고엘 법을 주셨어요.

나오미와 룻에게도 ‘기업을 무를 자’가 필요했어요. 룻 혼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무를 자’가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룻에게 보아스를 찾아가라고 했어요. 보아스는 자신을 찾아온 룻에게 ‘기업을 무를 자’의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어요. 보아스가 책임지고 약속을 지켜 나오미와 룻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책임을 지는 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예를 들어 나의 물건을 정리하는 것,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 학교생활을 성실히 하는 것 등등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나를 위한 일 같지만,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으로 이어지지요. 보아스처럼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해 공활을 베풀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길 소망해요.

## 토론하기

Q1.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내가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함께 나누어보세요.

Pray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 GOD'S TIME 1 셋째주

날짜 : 2023.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느헤미야 6:1-9 “산발랏의 흥계”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내가 성벽을 쌓아 올려 무너진 곳을 다 이었다는 말이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랍 사람 게셈과 그 밖의 우리 원수의 귀에까지 들어 갔다. 그러나 그 때까지도 성문들의 문짝은 만들어 달지 못하고 있었는데,
2. 산발랏과 게셈이 나에게 전갈을 보내 왔다. “오노 들판의 한 마을로 오시오. 거기서 좀 만납시다.” 나는 그 말 속에 그들이 나를 해치려는 흥계가 있는 줄 알았으므로,
3.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 없소. 어찌 이 일을 중단하고, 여기를 떠나서, 당신들에게로 내려가라는 말이요?”
4. 그런데도 그들은 똑같은 것을 네 번씩이나 요구해 오고, 그 때마다 나도 똑같은 말로 대답하였다.
5. 다섯 번째도, 산발랏이 심부름꾼을 시켜서 같은 내용을 보내 왔다. 심부름꾼이 가지고 온 편지는 봉하지 않았는데,
6.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모의하고 있고, 당신이 성벽을 쌓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소문이 여러 민족 사이에 퍼져 있소. 가스무도 이 사실을 확인하였소. 더구나 이 보고에 따르면, 당신은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으며,
7.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왕으로 떠받들고서 ‘유다에 왕이 있다’고 선포하게 할 예언자들까지 이미 임명하였다는 말을 들었소. 이러한 일은 이제 곧 왕에게까지 보고될 것이요. 그러니 만나서 함께 이야기합시다.
8. 나는 그에게 회답을 보냈다. “당신이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요. 당신이 마음대로 생각하여 꾸며낸 것일 뿐이요.”
9. 그들은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겁을 먹고 공사를 중단하여, 끝내 완성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전갈 : 사람을 시켜 남의 안부를 묻거나 소식을 전함

흥계 : 음흉한 꾀

봉하다 : 열지 못하게 단단히 붙임

회답 : 물음이나 편지에 대답하거나 답장함

으름장 : 말이나 행동으로 남을 위협함

with  
관찰

1.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해치려는 나쁜 계획을 세운 사람은 누구인가요? (2, 5절)

□ □ □

with  
생각

백성들이 성벽을 쌓아 올려 무너진 곳들이 다 이어지고 있다는 말을 들은 산발랏과 도비아, 계شم 일당은 느헤미야에게 오노 들판에서 만나자는 전갈을 보냈어요. 그것은 오노 들판에 함정을 놓고 느헤미야를 해치려는 나쁜 계획이었지요.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거절하자 산발랏은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에서 당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을 왕에게 보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그렇게하면 겁을 먹고 공사를 중단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힘을 주시라고 기도했어요.

with  
결심

계속되는 산발랏의 흉계에 느헤미야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를 죽이려고 하고, 왕에게 모함을 하려고 하는 일이 두려워 공사를 포기하거나 하지 않았지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에도, 어떤 방해에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나를 괴롭게 하는 일들, 믿음을 지키기 어렵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나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도와주실 거예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제가 되게 도와주세요.

나의 기도 :

\_\_\_\_\_

\_\_\_\_\_

\_\_\_\_\_

# GOD'S TIME 2 셋째주

날짜 : 2023.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느헤미야 6:10-19 “스마야의 거짓 예언”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0. 하루는 스마야를 만나려고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는 들라야의 아들이며, 므헤다벨의 손자인데, 문밖 출입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시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출입문들을 닫읍시다. **자객**들이 그대를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들이 밤에 와서, 반드시 그대를 죽일 것입니다.”
11. 나는 대답하였다. “나 같은 사람더러 도망이나 다니란 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절대로 살아 나올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12. 나는 그 때에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매수**되어서, 나를 해치는 예언을 하였다.
13. 그들이 스마야를 매수한 것은, 나에게 겁을 주어 성소를 범하는 죄를 짓게 하여서, 나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나를 헐뜯으려는 속셈이었다.
14. “나의 하나님, 도비야와 산발랏이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예언자 노아다와 그 밖에 나에게 겁을 주려고 한 예언자들이 나에게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15. 성벽 공사는 오십이 일 만인 엘룰월 이십오일에 끝났다.
16. 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완공된 성벽도 보았다.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꺾였다.
17. 그 무렵에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야에게 편지를 자주 보내고, 도비야도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곤 하였다.
18.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인 스가냐의 사위인데다가, 도비야의 아들 여호한난도 베레가의 아들인 므술람의 딸과 결혼하였으므로, 유다에는 그와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많았다.
19. 그들은, 내 앞에서도 서슴없이 도비야를 칭찬하고, 내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그에게 일러바쳤다. 그래서 도비야는 나에게 협박 편지를 여러 통 보내서 위협하였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자객** : 사람을 몰래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

**매수** : 금품 등으로 남의 마음을 사서 자기 편으로 만들

with  
관찰

1.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매수되어서 느헤미야를 해치는 예언을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10, 12절)

- ① 들라야    ② 므헤다벨    ③ 스마야    ④ 하나니

2. 성벽 공사는 며칠 만에 끝났나요? (15절)

- ① 50일    ② 51일    ③ 52일    ④ 53일

with  
생각

어느 날 예언자 스마야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 느헤미야를 죽이러 오는 자객들을 피하라’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느헤미야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예언자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예언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요. 느헤미야는 거짓 예언에 속지 않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공사에 전념하여 마침내 성벽이 완공되었어요.

with  
결심

스마야가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 몸을 피하라고 한 것은 몸을 거룩하게 한 제사장만 들어가야 하는 그곳에 느헤미야가 들어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죄를 짓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라고 하는 그 말이 거짓 예언임을 깨달았지요.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하고, 꼭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지만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가짜 복음, 거짓 소식이 있어요. 그것을 분별해 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야 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 언제나 바른 행동을 하는 제가 되게  
해 주세요.

나의 기도 :

---

---

# GOD'S TIME 3 셋째주

날짜: 2023.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느헤미야 7:1-72 “하나니와 하나냐”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성벽을 다시 쌓고, 문들을 제자리에 단 다음에, 나는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을 세우고
2. 나의 아우 하나니와 성채 지휘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 경비를 맡겼다. 하나냐는 진실한 사람이고,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3. 나는 그들에게 일렀다. “해가 떠서 환해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말고, 해가 아직 높고 있을 때에, 성문들을 닫고 빗장을 지르도록 하시오. 예루살렘 성 사람들로 경비를 세우시오. 일부는 지정된 초소에서, 일부는 자기들의 집 가까이에서 경비를 서게 하십시오.”
4. 성읍은 크고 넓으나, 인구가 얼마 안 되고, 제대로 지은 집도 얼마 없었다.
5. 귀족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을 모아서 가족별로 등록시키도록,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마침, 나는 일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가족별 등록부를 찾았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6.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빌로니아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바빌로니아 각 지방을 떠나 제 고향 땅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다.
7. 그들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아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개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와와 느훔과 바야나가 돌아올 때에 함께 돌아왔다. 이스라엘 백성의 명단과 수는 다음과 같다.
8. 바로스 자손이 이천백칠십이 명이요,
9. 스바다 자손이 삼백칠십이 명이요,  
(생략)
71.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공사를 위하여 창고에 바친 것은, 금이 이만 다락이요, 은이 이천이백 마네였다.
72. 나머지 백성이 바친 것은, 금이 이만 다락이요, 은이 이천 마네요, 제사장의 예복이 육십칠 벌이다.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느헤미야는 누구, 누구에게 예루살렘 경비를 맡겼나요? (2절)

,

with  
생각

성벽을 다시 쌓은 뒤 느헤미야는 성전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 레위 사람을 세웠어요. 그리고 진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냐와 하나니에게 예루살렘 경비를 맡겼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의 명단을 다시 정리 하였어요.

with  
결심

백성들이 열심히 힘을 합쳐 세운 예루살렘의 경비는 진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냐와 하나니에게 맡겨졌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그것을 실천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중요하고, 귀한 일을 맡겨 주세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기도 :

---

---

---

---

# GOD'S TIME 4 셋째주

날짜: 2023.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느헤미야 7:73-8:8 “함께 모여 율법을 들었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7:73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백성 가운데 일부와 성전 막일꾼들과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마다 고향에 자리를 잡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여러 마을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다.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에,

8:1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1. 일곱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아이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2.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아이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소리로 율법책을 읽어 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3. 학자 에스라는 임시로 만든 높은 나무 단 위에 섰다. 그 오른쪽으로는 맞디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가 서고, 왼쪽으로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밧다 나와 스가랴와 므술람이 섰다.
4.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 위에서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5.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6.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한난과 블라야는,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하여 주었다.
7.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with  
관찰

1. 백성들을 모아 율법책을 읽어준 제사장은 누구인가요? (2-3절)

with  
생각

완공 후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 모든 백성은 수문 앞 광장에 모였어요.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나와 그들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읽어 주었어요. 모든 백성은 율법을 들었어요. 에스라가 책을 펴면 모든 백성이 일어 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며 하나님을 경배하였어요.

with  
결심

백성들이 저마다 흠어져 자신의 고향에 정착을 하고 나자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함께 모여 말씀을 듣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요 하게 생각하고, 또 얼마나 가까이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나의 삶을 돌아보세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며, 가까이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

---

---

---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 히브리서 11장 1절 -



7월 넷째주  
2023년 7월 23일~7월 29일



# Memory Time



## 믿음으로 사는 삶

### 넷째주

♥ 주제 : 공홀의 삶 & 여름성경학교

♥ 암송구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 룻기 4:13-17

♥ 오늘의 주제 믿음으로 사는 삶 ▷ 룻기 4:13-17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을 살아가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 ① 보아스와 결혼하고 아들을 낳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13절)
- ② 룻의 가문에서 태어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구인가요? (17절)
- ③ 룻의 가문에서 태어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인가요? (17절)

★ 교육활동 - “믿음의 팔찌 만들기”

준비물 - 도안, 가위, 스카치테이프

- ① 도안을 준비해주세요.
- ② 가위로 도안의 테두리를 오려주세요.
- ③ 번호 순서대로 도안을 접어주세요.
- ④ 팔찌를 친구들 팔에 둘러 스카치테이프로 고정하면 완성!
- ⑤ 믿음의 팔찌를 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해요.

# 가족과 함께하는

# Sweet Time



친구들은 '나비효과'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나비효과란 나비의 날갯짓과 같은 작은 사건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커다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롯과 보아스의 가정에서 '나비효과'와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롯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갔어요. 그리고 보아스도 말씀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지요. 이들은 믿음 안에서 결혼을 하였고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훗날 오벳의 아들 이새의 가정에서 다윗이 태어났어요. 롯과 보아스는 자신의 가문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단지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갔지요. 그 결과 롯의 가문에서 다윗과 예수님이 태어나는 복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중요해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갈 때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믿음으로 한걸음, 한걸음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 토론하기

**Q1.**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함께 나누어 보세요.

**Pray**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 GOD'S TIME 1

## 넷째주

날짜: 2023.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느헤미야 8:9-18 “함께 모여 기뻐했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9.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 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타일렀다.
10.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진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 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생략)
12.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13. 이튿날에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각 가문의 어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자 에스라에게로 갔다.
14.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축제에는 초막에서 지내도록 하라는,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명하신 말씀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15. 또한 그들은 책에, 산으로 가서 올리브 나무와 들올리브 나무와 소귀나무와 종려나무와 참나무의 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짓도록 하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 널리 알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6. 그래서 백성은 나가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지붕 위와 마당과 하나님의 성전 뜰과 수문 앞 광장과 에브라임 문 앞 광장에 초막을 세웠다.
17.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모든 사람이 초막을 세우고 거기에 머물렀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렇게 축제를 즐긴 일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즐거워하였다.
18. 에스라는 첫날로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 주었다. 백성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드레째 되는 날에는 규례대로 성회를 열었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누구와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고 백성들을 타일렀나요? (9절)

총독 -

학자 -    제사장

with  
생각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울며 회개했어요.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는 이 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지 슬퍼하거나 울지 말고 함께 모여 기뻐하자고 말했어요. 백성들은 크게 기뻐하며 서로 도우며 하나님의 날을 보냈어요. 그리고 초막을 세우고 율법책을 읽으며 절기를 지켰어요.

with  
결심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울고 있자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해요.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난 뒤 해야 할 일은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예요. 기뻐함을 통해 얻은 힘으로 이제 다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지 않겠다 결단하는 것이예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저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기도:

---

---

---

# GOD'S TIME 2

## 넷째주

날짜 : 2023.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느헤미야 9:1-14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그 달 이십사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굶은 배 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썼다.
2.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이방 사람과 관계를 끊었다. 그들은 제자리에 선 채로 자신들의 허물과 조상의 죄를 **자백**하였다.
3. 모두들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낮의 사분의 일은 주 하나님의 율법 책을 읽고, 또 낮의 사분의 일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주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생략)
6. 주님만이 홀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과, 거기에 딸린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땅과 그 위에 있는 온갖 것, 바다와 그 안에 있는 온갖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늘의 별들이 주님께 경배합니다.
7. 주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택하시어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 내시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서 부르셨습니다.
8.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진실함을 아시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의 땅을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그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의로우셔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셨습니다.  
(생략)
10.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 조상을 업신여기는 것을 아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셔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을 치셨으며, 그 때에 떨치신 명성이 오늘까지 이릅니다.  
(생략)
12.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밝히 비추어 주셨습니다.
13. 몸소 시내 산에 내려오시며, 하늘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바른 규례와 참된 율법, 좋은 율례와 계명을 주셨습니다.
14.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알려 주시고,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셔서 계명과 규정과 율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자백 : 스스로 죄를 고백함

with  
관찰

1. 말씀을 읽고 빈칸을 채우세요. (2-3절)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이방 사람과 관계를 끊었다.

그들은 제자리에 선 채로 자신들의 허물과 조상의 죄를

하였다. 모두들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낮의 사분의 일은 주 하나님의

을 읽고, 또 낮의 사분의 일을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주 하나님께  하였다.”

with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여 금식하면서 율법책을 읽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경배하였어요. 온 세상을 지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민족이 태어나게 하시고,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였어요.

with  
결심

나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오늘의 삶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떠오르는 것을 적어 보세요.

예) 우리 부모님을 통해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

with  
기도

한줄 기도 : 저의 인생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 주세요.

나의 기도 :

---

---

# GOD'S TIME 3

## 넷째주

날짜: 2023.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느헤미야 9:15-26 “백성들의 죄”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 15. 굶주릴까봐 하늘에서 먹거리를 내려 주시고, 목마를까봐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들어 맹세하며 주시겠다고 한 그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은 거만하여, 목이 뻗뻗하고 고집이 세어서, 주님의
- 16.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주님께서 보여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 17. 곧 잊었습니다. 뻗뻗한 목에 고집만 세어서, 종살이하던 이집트로 되돌아가려고, 반역자들은 우두머리를 세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너그러우시며, 좀처럼 노여워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많으셔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 18. 더욱이, 우리 조상은, 금붙이를 녹여서 송아지 상을 만들고는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신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고 외치고, 주님을 크게 모독하였습니다.
- 19.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을 불쌍히 보셔서, 차마 그들을 광야에다가 내다 버리지 못하셨습니다. 낮에는 줄곧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밝혀 주셨습니다. (생략)
- 23. 주님께서서는 우리 조상의 자손을 하늘의 별만큼이나 불어나게 하시고,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생략)
- 25. 자손은 요새화된 성채들과 기름진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과 이미 파 놓은 우물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과 과일이 흐드러지게 열리는 나무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들은 먹고 만족하게 생각했으며, 살이 찼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큰 복을 한껏 누렸습니다.
- 26. 그런데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반역하였으며, 주님께서 주신 율법을 등졌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라고 타이르던 예언자들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듯 엄청나게 주님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말씀을 읽고 빈칸을 채우세요. (26절)

“그런데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하였으며,  
주님께서 주신   을 등졌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라고 타이르던  
예언자들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듯 엄청나게 주님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with  
생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주셨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였어요. 광야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니 이집트로  
되돌아 가고 싶다고 원망하기도 하고,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 섬기기도 하였  
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어요.

with  
결심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기겠다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였지요.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우선시하며 행동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예요.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동을  
한 적이 있는지 돌아보세요. 그러한 행동이 있다면 회개하고 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내가 되기로 결단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기도:

---

---

---

# GOD'S TIME 4 넷째주

날짜: 2023.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느헤미야 9:27-38 “언약을 세웠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30.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 해 동안 참으셨습니다. 예언자들을 보내 시어 주님의 영으로 타이르셨지만, 사람들은 귀도 기울이지 않았 습니다. 하는 수 없이, 주님께서는 그들을 여러 나라 백성에게 넘기 셧습니다.

31. 그러나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기때, 그들을 끔찍이도 불쌍히 여기셔서, 멸망시키 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생략)

34. 우리의 왕들과 대신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은 주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 다. 주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타이 르시는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 다.

35. 그들은 나라를 세우고 주님께서 베푸신 큰 복을 누리면서도, 눈 앞에 펼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에 살면서도, 주님을 섬기지도 않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도 않았습니 다.

36.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 이처럼 우리는 종살이를 합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좋은 과일과 곡식을 먹고 살라고 우리 조상에게 주신 바로 그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다.

37. 땅에서 나는 풍성한 소출은, 우리의 죄를 벌하시려고 세운 이방 왕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 왕들은 우리의 몸뚱이도, 우리의 가축도, 마음대로 부립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서운 고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38. 이 모든 것을 돌이켜 본 뒤에, 우리는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서명하였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말씀을 읽고 빈칸을 채우세요. (31절)

“그러나 주님께서는  로우시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을 끄찍이도 불쌍히 여기셔서, 멸망시키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with  
생각

백성들의 계속되는 배반과 불순종으로 인해 백성들은 종살이를 하게 되었고,  
땅에서 나는 모든 풍성한 소출은 이방 왕들의 것이 되었어요. 백성들은 무서운  
고역을 치르게 되었어요.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이 모든 사실을 돌이켜 본 뒤에 언  
약을 굳게 세우고, 글로 적어 그 위에 서명하였어요.

with  
결심

은혜롭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스  
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셨어요. 느헤미야를 보내셔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하셨지요.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상세히 돌이켜 본 뒤에 이제 다시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언약을 굳게 세웠어요.  
지난 큐티 시간에 나의 죄를 회개하였다면 이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을 할 것인지 하나님께 약속하는 시간을 가져  
보세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나의 기도:

---

---

---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 히브리서 11장 1절 -





7월 다섯째주  
2023년 7월 30일~8월 5일



# Memory Time



하나님께 순종해요

다섯째주

♥ 주제 : 긍휼의 삶 & 여름성경학교(나는 믿음의 사람)

♥ 암송구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1

♥ 오늘의 주제 하나님께 순종해요 ▷창세기 22:1-18

믿음의 삶은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여름성경학교 닫는 예배로 드립니다.

# 가족과 함께하는

# Sweet Time



다섯째주

친구들, 성경학교 즐겁게 보내고 있나요?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지키기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또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함께 알아보아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 얻은 아들 이삭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지키기에 정말 어려운 명령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어요. 이해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달라도 믿음으로 따르는 것을 말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도 때로는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기억하면 좋겠어요. 믿음의 사람은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순종의 여린이가 되길 소망해요.


## 토론하기

**Q1.** 우리 가정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함께 나누어 주세요.

**Pray**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 GOD'S 다섯째주 TIME 1

날짜: 2023.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느헤미야 10:1-31 “백성들의 맹세”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서명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하가라의 아들인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와
2. 스라야와 아사랴와 예레미야와 (생략)
28. 이밖에 나머지 백성, 곧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 문지기과 노래하는 사람과 성전 막일꾼과 주님의 율법을 따르려고 그 땅의 여러 백성과 인연을 끊은 모든 이들과 그 아내들과 그들의 아들딸들과 알아들을 만한 지식이 있는 이들 모두가,
29. 귀족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하고,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에 복종하기로 하였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다.
30. “우리는 딸을 이 땅의 백성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31.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어떤 곡식을 내다가 팔더라도,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우리가 사지 않는다. 일곱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육 년이 지난 빛은 모두 없애 준다.”
32.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규례도 정하였다. “하나님의 성전 비용으로 쓰도록, 우리는 해마다 삼분의 일 세겔씩 바친다. (생략)
39.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은 들어 바칠 예물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그 여러 방에 가져다 놓기로 하였다. 그런 방은 성전 기구를 두기도 하고, 당번 제사장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쓰기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말씀을 읽고 빈칸을 채우세요. (29절)

“귀족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을 따르기로 하고,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에   하기로 하였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다음과 같이   하였다.”

with  
생각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하고,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하였어요. 그리고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고, 안식일에 물건을 거래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성전 비용으로 쓰도록 해마다 삼분의 일 세겔씩 바치는 등의 내용을 맹세하였어요.

with  
결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꼭 해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것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고, 안식일에 물건을 거래하지 않는 등의 행동이었지요. 나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꼭 해야 하는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구체적인 행동을 생각해 보고 그것을 실천하기로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동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기도 :

---

---

---

# GOD'S TIME 2

## 다섯째주

날짜: 2023.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느헤미야 11:1-36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자리잡았다. 나머지 백성은 주사위를 던져서, 십분의 일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고, 십분의 구는 저마다 자기의 성읍에서 살게 하였다.
2. 스스로 예루살렘에서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 모두에게는 백성이 복을 빌어 주었다.
3.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은 지방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곧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 막일꾼과 솔로몬을 섬기던 종의 자손은, 각자가 물려받은 땅인 유다 여러 성읍에서 살고,
4. 유다와 베냐민 자손 가운데서 일부가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유다 자손으로는 아다야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웃시야요, 그 윗대는 스가랴요, 그 윗대는 아마랴요, 그 윗대는 스바댜요, 그 윗대는 마할랄렐이요, 그 윗대는 베레스이다.  
(생략)
18. 거룩한 성에 자리를 잡은 레위 사람들은 모두 이백팔십사 명이다.
19. 성전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친족들인데, 모두 백칠십이 명이다.
20.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 유산으로 받은 땅이 있는 유다 여러 성읍에 흩어져서 살았다.  
(생략)
36.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는 베냐민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말씀을 읽고 빈칸을 채우세요. (2절)

“스스로    에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  
모두에게는 백성이 을 빌어 주었다.”

with  
생각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정착하고, 나머지 백성들은 주사위를 던져서  
십분의 일이 예루살렘에 살게 되었어요. 스스로 예루살렘에서 살겠다고 자원한  
사람 모두에게는 백성이 복을 빌어 주었어요.

with  
결심

예루살렘에 살게 된다는 것은 사실 매우 힘든 일이었어요. 아직도 척박한 그곳을  
다시 세우고, 일으켜야 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예루살렘에서 살기로 결단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각자 맡은 자리에 따라 예루  
살렘을 세워나갔어요.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내가 맡은 일이 있어요.  
각 부서로, 찬양대로, 또는 반의 구성원으로. 내가 있는 곳에서 기뻐하며 그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거예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내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제가  
되게 도와주세요.

나의 기도 :

---

---

---

# GOD'S TIME 3 다섯째주

날짜: 2023.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느헤미야 12:1-47 “기쁘게 봉헌식을 했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따라서 함께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제사장은 스리아와 예레미야와
2. 에스라와  
아마라와 말룩과 핫두스와  
(생략)
26. 이 사람들은 모두, 요사닥의 손자이자 예수아의 아들인 요아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인 에스라 제사장 시대에 활동한 사람들이다.
27.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어서, 봉헌식을 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곳곳에서 레위 사람을 찾아내어,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심벌즈를 치며, 거문고와 수금을 타며, 즐겁게 봉헌식을 하려는 것이었다.  
(생략)
30.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몸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치른 다음에, 백성과 성문들과 성벽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올렸다.
31. 나는 유다 지도자들을 성벽 위로 올라오게 하고, 감사의 찬송을 부를 큰 찬양대를 두 편으로 나누어 서게 하였다. 한 찬양대는, 오른쪽으로 거름 문쪽을 보고 성곽 위로 행진하게 하였다.  
(생략)
43. 그 날, 사람들은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셨으므로,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함께 기뻐하니,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생략)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with  
관찰

- 제사장 스라야, 예레미야, 에스라는 누구와 누구를 따라서 함께 돌아왔나요? (1절)
  - ① 느헤미야와 고레스      ② 다윗과 요나단
  - ③ 스룹바벨과 예수아      ④ 아마랴와 말록

2.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된 후 사람들은 기뻐하며 무엇을 하였나요? (27절)

□ □ □

with  
생각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자 백성들은 모여서 봉헌식을 하였어요.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각종 악기를 연주하며 기쁘게 봉헌식을 하였어요. 그 후 성벽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올리고, 행진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크게 기뻐하였어요.

with  
결심

백성들이 정착하고, 성벽이 완성되자 백성들은 봉헌식을 하였어요. 봉헌은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요. 주일 헌금을 봉헌할 때 나의 것을 드리기에 아까워하거나, 욕심 내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나의 기도:

---



---



---

# GOD'S 다섯째주 TIME 4

날짜 : 2023.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느헤미야 13:1-31 “백성들의 죄”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6. 이 모든 일은, 내가 예루살렘을 비었을 때에 일어났다. 나는 바빌론 왕 아닥사스다 삼십이년에 왕을 뵈러 갔다가, 얼마가 지나서 왕에게 **말미**를 얻어,
7.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야, 엘리아십이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 도비아가 살방을 차려 준 이 악한 일을 알게 되었다.
8. 나는 몹시 화가 나서 도비아가 쓰는 방의 세간을 다 바깥으로 내던지고,
9. 말하였다. “그 방을 깨끗하게 치운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그릇들과 곡식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다 놓아라!”

(생략)

16. 예루살렘에는 두로 사람도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안식일에 물고기와 갖가지 물건을 예루살렘으로 들여다가, 유다 백성에게 팔았다.
17. 그래서 나는 유다의 귀족들을 꾸짖었다. “안식일을 더럽히다니, 어찌자고 이런 나쁜 일을 저지르는거요?”
18. 당신들의 조상도 똑같은 일을 하다가, 우리와 우리 도성이 모두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았소? 당신들이야말로 안식일을 더럽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진노를 내리시도록 하는 장본인들이요.”

(생략)

30. 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묻은 이방 사람의 부정을 모두 씻게 한 뒤에, 임무를 맡겨 저마다 맡은 일을 하게 하였다.
31. 또 사람들에게 때를 정하여 주어서, 제단에서 쓸 장작과 처음 거둔 소산을 바치게 하였다.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 말씀을 2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말미** : 일정한 직업이나 일에 매인 사람이 다른 일로 얻은 기간, 휴가

with  
관찰

1.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 도비야가 살 방을 차려 준 제사장은 누구인가요? (7절)  
① 느헤미야    ② 에스라    ③ 가말리엘    ④ 엘리아십
2. 안식일에 물고기와 갖가지 물건을 예루살렘으로 들여다가 유다 백성에게 판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16절)

사람

with  
생각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러 잠시 예루살렘을 비웠을 때 제사장 엘리아십이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 도비야가 살 방을 차려 주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레위인과 제사장이 들어가야 하는데, 심지어 예루살렘 공사를 방해하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도비야의 방을 내어주었던 것이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 도비야의 물건을 치우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였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행하는 안식일을 범하는 죄 등을 모두 회개하게 하였어요.

with  
결심

엘리아십은 도비야와 친한 관계라는 이유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성전에 방을 내주는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어떤 관계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기도 하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느헤미야처럼 단호하게 그 관계를 끊어낼 수 있어야 해요.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람을 멀리하며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내가 되기로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저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람과는 멀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기도 :

---

---

# Morning 가족과 함께하는 Time

1. 잠들어 있는 친구의 팔다리를 가볍게 마사지하며 깨워주세요.
2. 자리에 누워서, 친구에게 찬양을 들려/읽어 주세요.
3. 친구를 꼭 안아주며 기도해주세요.



## 찬양 <내 마음 다해>

- Russell Reagar

내 마음 다해 주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 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X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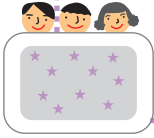
사랑하는 OO(아)야,

이번 달은 느헤미야서를 함께 읽었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백성들을 가르치고, 위로하고, 함께 예루살렘을 세워간 느헤미야를 보았지. 그는 오늘 읽은 찬양처럼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하였던 사람같아. 우리 OO(이)와 우리 가족 모두도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자신의 힘을 다해 예루살렘을 세워 나갔던 느헤미야처럼, 힘을 다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가족 모두가 되게 도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가족과 함께하는

1. 친구가 잠을 청하기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함께 해주세요.
2. 친구에게 오늘 하루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물어봐주세요.
3. 친구에게 말씀을 읽어 주세요.
4. 친구를 포근하게 안아주며 기도해주세요.



## 말씀 &lt;시편 84편, 새번역&gt;

1.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2.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 뜰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 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3.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 칠 보금자리를 엮습니다.
4.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셀라}
5.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생략)
10. 주님의 집 뜰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천 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11. 주 하나님은 태양과 방패이시기에, 주님께서는 은혜와 영예를 내려 주시며,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 주십니다.
12. 만군의 주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OO(아)야,

시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궁궐에서 보내는 천 일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하루가 더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복을 받고, 마음에서 찬양이 흘러 나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며 기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족 모두가 되길 소망해. 자 함께 기도하자.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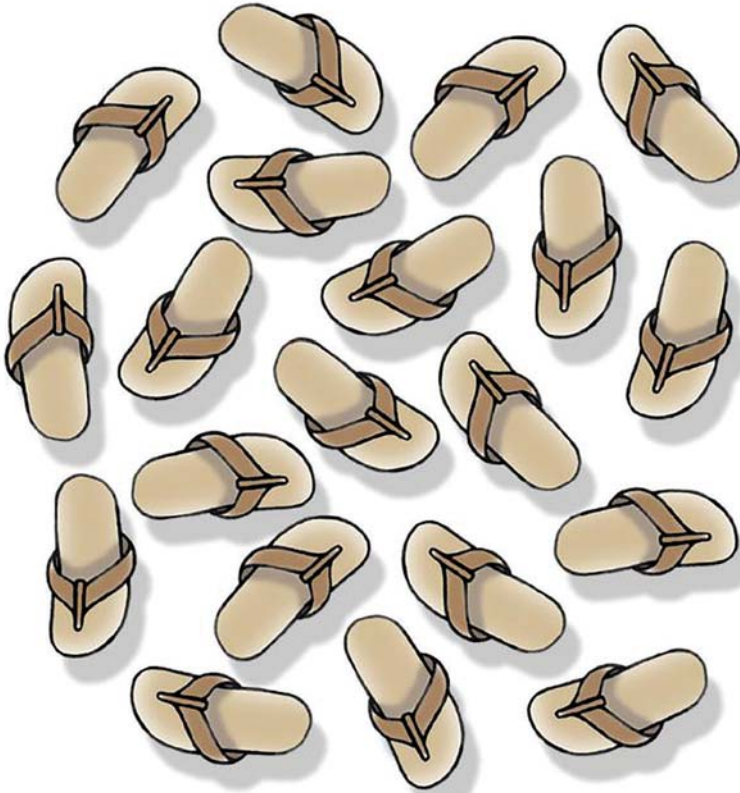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평안, 행복이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FUN FUN PLAY

## 브레인업!

오른쪽 샌들을 찾아보세요.

[제한시간 30초]



정답은 74p에서 찾아 보세요!



## 다른 그림 찾기 & 성경 퀴즈

### 숨은그림

토끼, 머그컵, 알파벳 Z, 포도, 배드민턴 공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웠어요]**

룻은 곡식을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웠어요. 마침 이삭을 주운 밭이 친척인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보아스는 룻이 시어머니를 잘 섬기고 성실한 여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보아스는 룻에게 친절히 대해 주었고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게 해 주었어요 [룻2:1~17]

정답은 74p에서 찾아 보세요!



초등2부 4-2 최아인



초등2부 4-3 백승애



초등2부 4-4 빙서윤



초등2부 3-11 김소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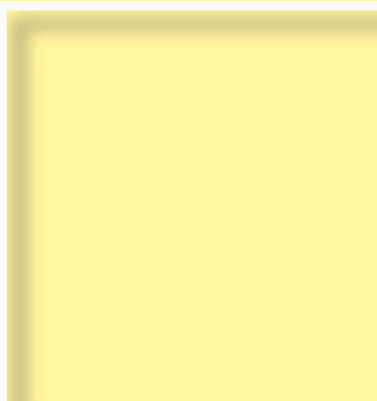




초등2부 4-11 조희원



초등2부 4-14 정유진



## 브레인업 정답

예수님께서 신고 다니신 샌들이예요  
오른쪽 샌들을 찾아보세요.

[제한시간 30초]



성경퍼즐 정답



# 7월 QT + STICKER








부 학년 반

이름 :

GOD'S TIME	1	2	3	4
첫째주				
둘째주				
셋째주				
넷째주				
다섯째주				



	<p>1) 팩에 풀을 바른 후 색지를 붙여주세요. (한 장 붙이면 상표가 보이니 두 장을 붙여주세요.)</p>
	<p>2) 지붕 모양을 생각하여 잘라서 길이를 맞춰보고 붙여주세요. (지붕도 우유팩에 붙인 것처럼 두 장을 붙여주세요.)</p>
	<p>3) 양쪽 입구를 삼각형 모양으로 잘라서 붙여주세요.</p>
	<p>4) 한쪽 면에 동전 넣을 공간을 칼로 만들어주세요.</p>
	<p>5) 이제 저금통을 예쁘게 꾸며주세요.</p>



